



- **경제 이슈** : 신규취업자 6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 증가세
일본 경제 회복세
- **경영 노트** : 맨유의 모예스(Moyes) 감독이 실패한 5가지 이유
- **사회 트렌드** : 꼰대 탈출 10계명
- **저널 브리프** : 리더십의 6가지 유형
- **금주의 도서** : 중국뿐인 세상 - 중국식 자본주의의 세계 정복 탐사기
- **洗心錄** : 치타 델레

□ 신규취업자 6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 증가세

-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신규취업자는 50대 및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58.1만 명 늘어 6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 증가세 기록
 - 고용지표 동향 : 4월중 신규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8.1만 명 늘어 2013년 4월의 34.5만 명 보다 큰 폭 증가. 고용률은 60.6%로 2007년 6월 이래 최고치 기록. 취업자 증가와 함께 구직활동의 증가로 실업률도 3.9%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 산업별 : 도·소매업의 신규취업자 증가폭이 전년동월대비 18.2만 명 늘어 큰 폭의 취업자 증가세 견인. 그 밖에 보건·복지(14만 명), 숙박·음식(12.1만 명), 제조업(9.6만 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 연령별 : 50대 취업자는 27.3만 명, 60세 이상 취업자는 20.6만 명,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9.4만 명, 40대 취업자는 6.8만 명 각각 증가하였고, 30대 취업자는 6만 명 감소
- 국내 및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과 고용 친화적 정책의 영향으로 비경제활동 인구의 구직활동이 크게 증가하였고, 하반기까지 고용 확장세가 지속될 전망

□ 일본 경제 회복세

- 일본 내각부는 지난 15일 2014년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예비치를 발표. 일본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호조로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 회복세를 보임
 - 실질GDP 성장률 추이 : 2014년 1/4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연율 기준 5.9%(전기대비 1.5%)를 기록하여 2013년 2/4분기 3.9%, 3/4분기 1.1%, 4/4분기 1.0%로 둔화되던 일본의 경제 회복세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
 - 민간소비 회복 :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3년 4/4분기 전기대비 0.4%에서 2014년 1/4분기 2.1%로 개선되어 2.2%를 기록했던 1997년 1/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 설비투자 호조 : 기업의 설비투자도 2014년 1/4분기 전기대비 4.9%로 급증하면서 2013년 4/4분기 성장률(1.4%)을 크게 상회
- 일본 경제가 기대 이상의 회복세를 보였지만, 2014년 4월 일본 정부의 소비세 인상 이전 민간소비의 집중으로 인해 소비활성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본의 경제 회복세가 다시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

□ 맨유의 모예스(Moyes) 감독이 실패한 5가지 이유¹⁾

- 퍼거슨 감독 후임으로 지휘관이 된 모예스 감독은 ‘맨유 사상 최악의 성적을 낸 감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경질
 - 맨유는 프리미어리그 출범(1992년) 이래 지난해까지 21년 동안 역대 최다(13회) 우승, 리그 3위 이하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영원한 우승 후보였음
 - 데이비스 모예스 감독이 지휘봉을 넘겨받고 나서 거둔 성적은 19승 7무 12패로 리그 7위에 불과했고, 19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좌절
- 맨유의 몰락은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사례
 - 감독 교체를 제외하고 주전 선수 11명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동이 없음

< 모예스 감독이 실패한 5가지 이유 >

	내 용
위임하지 않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거슨이 선수들에게 직접 개입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 경기가 있는 날뿐이었고, 신뢰할 만한 코치진을 선임하여 훈련 등 팀 운영을 위임 • 반면 모예스 감독은 모든 훈련 과정에 일일이 간섭하여 코치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선수들은 감독과 매일 만나는 것을 지겨워함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바꾸려 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예스는 취임하자마자 퍼거슨 시절 코치진을 내쫓고, 기존에 자신이 거느리던 코치진을 대거 데려옴 •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한 건 오류였고, 자신의 사람들을 데려오더라도 점진적으로 데려오는 것이 바람직했음
핵심 가치와 믿음에 충실하지 않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거슨은 경기장과 언론을 통해 항상 맨유의 저력을 강조했으나, 모예스는 어딘지 자신 없어 보이고 겁먹은 인상을 줌 • 퍼거슨은 언론을 아주 거칠게 대했고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가 정확히 보도되길 희망했으나, 모예스는 경쟁자들을 너무 치켜세웠음 • 모예스가 “맨유가 맨체스터시티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을 때 팬들은 자존심이 상했고,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진 뒤 “리버풀이 한 수 위였다.”고 말했을 때 분노했음
잘못된 선수를 기용하고 이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몰랐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 선수를 기용하는 것보다 필요한 선수를 기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예스는 팀의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 • 모예스는 다른 팀에서 뛰던 선수 두 명(펠라이니, 마타)을 영입하는 데 많은 돈을 썼지만, 그들은 맨유에 적합한 선수가 아니었음
비전이 없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거슨 시절에는 팀이 잠시 부진해도 결국 극복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모예스는 그런 신뢰를 주는 데 실패 • 모예스는 뭔가 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못했고, 그저 매 주 경기를 치르는 데 급급함

1) ‘축구에서 배운다, 심장을 뛰게하는 리더십’(조선일보, 2014.05.10)과 ‘모예스가 실패한 5가지 이유’(조선일보, 2014.05.10)를 요약 정리함.

□ **꼰대 탈출 10계명²⁾**

- **첫째,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 꼰대는 말이 많음. 상대방이 듣든지 말든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늘어 놓음
 - 반대로 많이 들으면 판단의 자료가 풍부해짐
- **둘째, 같은 말을 두 번 이상 되풀이 하지 말라**
 - 아랫사람들이 자신의 얘기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중언부언과 동어 반복을 야기
- **셋째, 영화 감상이나 공연 관람 등의 문화 체험을 통해 감수성을 키워라**
 - 틈 날 때마다 젊은 층이 현재 무엇을 좋아하는지 문화의 트렌드가 뭔지 영화나 공연 같은 문화 체험을 많이 하라
- **넷째, 신문은 논조가 다른 두 종류 이상을 읽어라**
 - 어느 한쪽 신문만 읽는다면 편향된 사고와 꼰대의 사고에 빠지기 쉬움
- **다섯째, 음악과 문학을 가까이 하라**
 - 생각이 여유로워지고, 언어가 풍부해짐
- **여섯째, 젊은이들은 한심하다는 생각을 버려라**
 - 요즘 20대들은 해방 이후 가장 치열하고 잔혹한 경쟁 시스템을 통과한 스마트한 세대에 걸 인정하라
- **일곱째, 어리다고 쉽게 반말을 쓰지 마라**
 - 반말은 수평적이고도 평등한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 가급적 존댓말을 쓰자
- **여덟째,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중을 관리하라**
 - 배가 나오면 외모 자체가 꼰대스러워짐
- **아홉째, 과식과 과음을 피하라**
 - 비만하면 무식해짐. 과음하면 말이 많아지고 말실수를 하기 쉬움
- **열째, 유머 감각을 키워라**
 - 유머감각은 의사소통을 풍요롭게 해주며 상대방이 혹시라도 가지고 있을 나에게 대한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지름길

2) '꼰대 탈출 10계명'(헤럴드경제, 2014.5.16)을 요약 정리함.

□ 리더십의 6가지 유형³⁾

○ 글로벌 경영 컨설팅그룹 헤이컨설팅은 리더십의 6가지 유형에 대해 소개

① 지시 명령형 리더십

- 부하에게 명확하고 강력하게 지시하지만 그 지시의 목적이나 실현 방법에 대한 부연 설명은 대개 생략
-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지시와 명령이 필요한 경우 큰 효과를 발휘하지만 이 리더십을 반복할 경우 부하에게 자주성을 부여하지 못함

② 비전형 리더십

- 부하에게 조직의 방향 및 비전을 먼저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면서 조직을 인솔
-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여 조직 구성원들에게 열정적으로 일할 동기를 부여하지만 리더에 대한 부하의 존경과 신뢰가 전제되어야만 효과를 발휘

③ 관계 중시형 리더십

- 조직의 화합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리더십으로 부하 위에 군림하거나 비전을 제시해서 인솔하기보다 친화적이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통해 부하를 움직임
- 새로운 직원을 조직에 동화시키고 업무에 적응시키는데 효과적이거나 조직 내 긴장감이 저해되어 성과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큼

④ 집단 운영형 리더십

- 업무 방식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 부하를 참여시키고 이들의 의견과 동의를 얻으면서 업무를 진행하며 조직 구성원의 의견을 정리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
- 가장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모든 구성원의 의사를 경청할 수 있으나 조직을 리드하면서 최종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부족하여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속도가 떨어짐

⑤ 규범형 리더십

- 부하에게 철저한 자기관리와 높은 업적수준을 요구하며 자신이 그 규범을 보이기 위해 솔선수범
- 조직 구성원의 역량이 우수할 경우 효과적이거나 상사 혼자서 업무를 처리하기 힘든 경우나 부하에게 많은 것을 지시하고 가르쳐야 할 때는 적합하지 않음

⑥ 육성형 리더십

- 부하에게 지도와 조언을 게을리 하지 않고 당장의 업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을 중시
- 부하가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매우 효과적이거나 리더의 지도 역량이 부족하거나 단기적인 성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음

3) '조직의 승패 결정하는 '6가지 리더십 유형'(위키투리, 2014.05.09)참조.

□ 중국뿐인 세상 - 중국식 자본주의의 세계 정복 탐사기⁴⁾

저자들(후안 파블로 카르데날과 에리베르토 아라우조)은 특유의 기자 정신을 발휘하여 끈질기고 치밀한 탐사를 통해 중국이 다른 나라의 경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들 정권과 어떻게 결탁하며, 왜 이토록 탐욕스럽게 세계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는지, 중국의 자원개발 전략의 실체를 파헤침. 2009년에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아시아의 개도국으로 뻗어 나가는 중국의 확장에 대한 탐사 보도를 시작하였고, Foreign Policy, South China Morning Post, Radio France International 등에 기고한 내용을 책으로 엮음.

- **중양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에서 중국의 입김이 감지**
 -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 지난 10년 새 중국의 중공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실업자 수가 급증
 - (중국인 해외 진출의 어두운 뒷배경) 해외 이주자들의 절박한 경제적 상황, 인력수출 대행사의 탐욕, 인력 수출로 지역의 실업률을 낮추려는 지방정부의 무관심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내며 결국 이주자들만 불리한 상황에 내몰림
 - (해외 자원시장 개발을 가장한 자원 약탈) 기반시설과 천연자원의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자원 가공산업 육성을 방치하고 천연 그대로의 자원을 채취
- **중국의 자원 침탈 사례**
 - (러시아) 러시아 북동부 지역에서 불법 벌채뿐만 아니라 숲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약탈하면서 생태계를 파괴함
 - (미얀마) 중국 기업과 미얀마 장군들과의 결탁, 임의적인 토지 몰수, 귀금속 채굴만 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가공산업 발전에는 무관심
 - (콩고)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 주는 대가로 콩고의 구리(매장량 : 681만 톤)와 코발트(매장량 : 6,700톤)에 대한 30년 채굴권을 획득하였지만 이들 자원의 채굴 가치가 사회기반시설의 경제적 가치를 능가함
- **식민지 경제 모델을 답습하는 중국**
 - '상호보완성'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치장된 중국과 아프리카, 중양아시아, 중남미와의 경제 관계
 - 그러나 실제로는 예전에 서구 유럽이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사용했던 식민 지배 체제를 떠올리는 방식인 '너의 원료로 만든 나의 최종 생산품'이 중국과 이 지역들과 맺은 경제 관계의 기초 공식

4) 후안 파블로 카르데날 & 에리베르토 아라우조 지음, 전미영 옮김, "중국뿐인 세상 - 중국식 자본주의의 세계 정복 탐사기", 명량한 지성, 2014.

□ 치타 델레

‘치타 델레’를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해보면, ‘요새안의 독립된 작은 보루, 내성(內城)’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치타 델레’라는 단어는 몽테뉴 때문에 유명해졌다. 몽테뉴가 명작 <수상록(Essais)>을 저술한 장소가 바로 저택 안에 있던 3층짜리 원형 탑이라고 알려지면서부터 ‘치타 델레’도 널리 알려졌다고 한다.

1533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몽테뉴는 청어와 대구 장사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할아버지와 보르도 시청의 고위직이었던 아버지 덕분에 21세라는 젊은 나이에 보르도 지역의 판사가 될 수 있었다. 법관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던 몽테뉴는 부친의 사망을 계기로 15년 동안의 판사 생활을 미련 없이 접고, 고향의 영지로 되돌아왔다. 그는 저택 안에 있던 3층 원형탑 ‘치타 델레’에 머물면서 독서하고 글 쓰는 것을 즐겼다. 많은 책을 읽었고, 읽은 것에 주석을 달았고, 사소한 일상의 사건들에 관한 견해를 종이에 적어 두었다. 이렇게 그날 그날,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진 책이 바로 <수상록> 초판이다. 이후 보르도 시장에 선출되어 공직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페스트의 창궐로 다시 시골에 칩거하면서 <수상록> 증보판을 냈다. 이처럼 몽테뉴가 공직에서 벗어나 잠시 쉬면서 쓴 책이 바로 <수상록>이다.

직장과 가정에서 바빠 생활하다 보면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버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럴 땐 자신만의 ‘치타 델레’로 잠시 피신해보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 보자. 굳이 별장이나 콘도처럼 근사한 장소가 아니어도 좋다. 스님들의 ‘동안 거’, ‘하안거’처럼 오래 하지 않아도 좋다. 천주교의 ‘피정’이나 불교의 ‘템플 스테이’에 짧게 참가해도 좋다. 직장이나 집 주변의 길을 마냥 산책해도 좋다. 이렇게 자기만의 ‘치타 델레’를 만들어 놓고, 재충전할 수 있다면 하루하루가 훨씬 더 행복해 질 것이다. 당연히 업무의 생산성도 높아질 것이다. 나만의 ‘치타 델레’는 어디에 있고, 어떤 형식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현명한 사람과 마주앉아 나누는 한 번의 대화는
한 달 동안 책으로 공부하는 것만큼의 가치가 있다.**

- 중국 속담